



남원시는 엘리트선수 육성과 생활체육육성을 위한 '거점 K-스포츠 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8억원씩 3년간 2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남원시, K-스포츠 클럽 선정

24억원 국비 확보... 복싱·테니스·인라인·축구 4종목 육성 키로

남원시는 엘리트선수 육성과 생활체육육성을 위한 '거점 K-스포츠 클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매년 8억원씩 3년간 2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거점 K-스포츠 클럽은 지역 내 엘리트선수를 육성하는 전문형 클럽운영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육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제공하는 공공클럽 육성은 물론 도내 지역 K-스포츠클럽(도내 4개소) 운영을 지원하는 거점클럽의 3가지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남원시는 엘리트 선수 육성으로 복싱, 테니스, 인라인, 축구 4종목을 육성할 예정이며, 3년차부터는 유도를 엘리트 체육으로 편입시킬 예정이며,

생활체육 육성분야는 엘리트 종목에 타구를 더한 5~6개 종목을 운영할 예정이다

거점 K-스포츠 클럽 엘리트 선수 육성 지도는 국가대표 경력을 가진 수준 높은 지도자가 직접 지도함으로써, 우수선수 발굴이 쉬어져, 남원을 대표할 체육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과 유망한 체육인재 유입, 지역 K-스포츠 팀과 연계한 체육 경기 및 훈련 개최 등으로 남원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활체육 육성부분도 우수 지도자 영입 등으로 한단계 높은 지도를 통해 동호인들의 기량향상 및 운동기회 증진을 통해 체육복지 증진에

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공모사업 선정은 이환주 남원시장의 목보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인 이용호 의원의 정치권의 적극적인 유익적인 지원이 어우러진 쾌거로서, 향후 사업추진에도 청신호가 켜져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금번 거점 K-스포츠 클럽 선정을 통해 엘리트 선수 육성과 체계적인 시민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지리산스포츠 중심도시 확립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체계적이고 적절한 운영을 통해 체육을 통해 남원 시민이 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남원시 달오름마을과 노봉혼불문학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찾아 가고 싶고, 쉬고 싶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으뜸촌'에 선정 됐다.

남원 달오름-노봉혼불문학마을 '으뜸촌' 선정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경관·서비스·체험·숙박·음식 4개 부문 평가

남원시 달오름마을과 노봉혼불문학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찾아 가고 싶고, 쉬고 싶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으뜸촌'에 선정 됐다.

'으뜸촌'은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부문을 평가한 농촌관광 등급제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마을을 지칭한다.

남원시 인월면에 위치한 달오름마을(위원장 황태상)은 2014년 으뜸촌 지정에 이어 '16년 재심사에서도 으뜸촌에 선정되었다.

또, 농사체험, 관소리체험, 달떡만들기, 아꼴과만들기, 달오름 소원빌기(풍동날리기) 체험은 물론이며 흥부잔치, 바를 활용한 바주불러,

박뽕밥 등 흥미롭고 재미있는 체험과 먹거리 등이 연중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체험과 함께 판매되는 아꼴과, 아꼴죽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남원시 사매면에 위치한 노봉혼불문학마을(위원장: 김용구)은 '16년 신규 으뜸촌으로 선정되었으며, 농사체험, 목공예, 도자기공예, 한지공예, 염색공예 체험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마을에서 주최하여 매년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를 진행하는데 2016년 제3회 혼불문학 신행길 축제가 5일부터 이틀간 노봉혼불문학마을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3년 농촌관광사업 등급 제도를 도입하

여 2년 주기로 재심사하여 등급결정을 하고 있으며 2015년도 으뜸촌(8개소)과 '16년도 으뜸촌(28개소)을 합쳐 전국 36개(전체 체험마을 873개 중) 마을을 으뜸촌 선정하였고, 으뜸촌으로 선정된 마을은 향후 농촌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정책에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으뜸촌을 중심으로 남원의 농촌체험관광이 한층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남원을 찾는 체험관광객들이 즐겁고 의미 있는 힐링여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으뜸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촌관광 포털 '우리나라좋은마을(www.welchon.co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수상

이용호 국회의원, 지역발전 공로 대상



국민의 당 이용호(남원, 임실, 순창) 국회의원은 11월 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16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사회발전공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용호 의원은 순창에 C형 감염이 200명 정도 집단발생 하였다는 언론보도에 대하여 질병관리 본부와 언론의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 정정지역의 이미지를 되찾아 큰 성과를 냈었다.

국정감사에서도 풍부한 자료 준비와 명확한 질문으로 코너링이란

신조어를 만들어내 초선답지 않은 실력을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제가 얻은 별명이 셋인데 공교롭게도 오늘 받은 상도 한국을 빛냈다고 주는 상입니다. 어둡고 암울한 곳을 찾아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16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대한민국의사협회, 언론인연합협회 등 8개 단체에서 주관하여 정치·사회·문화·예술·과학·스포츠 부문과 일반기업 및 공직부문에서 봉사, 선행, 효행 등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발전 등 타의 귀감이 되는 인물들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군 명품 마을만들기 포럼 개최

고창공동체협의회(이하 공동체협의회)가 3일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3층에서 군민과 관계 공무원, 도의원, 군의원 등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군 명품 마을만들기 포럼'을 개최했다.

고창군(군수 박우정) 농업진흥과가 주최하고 공동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고창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은 마을만들기 선진지로 일컬어지는 완주군 사례는 물론,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국의 현황을 견학하여 살펴봄으로써 고창군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더불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김종호 대외협력관은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전국적인 흐름과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중간지원조직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전)메이플-스톤 지원센터의 김하생 센터장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민·관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봤다. 완주군의 실질적인 마을만들기 사업을 기획해 추진했던 완주군청 박병운 팀장은 완주군의 사례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

주민과 중간지원조직, 마을만들기 활동가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어 이대건 책마을 해리 대표가 고창군 중간지원조직 구축 현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 지정토론에 나선 이호근 도의원과 조만규 고창군의원도 고창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럼을 준비한 공동체협의회 이대건 회장은 "그동안 고창에도 수많은 마을사업이 진행됐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포럼은 마을사업이나 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마을 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치 역량을 키워 주민 소득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창군은 중앙부처와 전북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방향에 맞춰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석 기자

임실군, 건강한 식습관 기초 되는 영양교육 실시

관내 어린이집 아동 100명대상

임실군이 관내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의 기초가 되는 영양교육을 3일과 오는 11일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영양플러스사업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아동 100여명을 대상으로 균형 잡힌 신체발달과 올바른 영양관 확립을 위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다.

5대 영양소 이름과 역할, 영양소로 구성된 식품구성법 완성하기, 편식쟁이 아끼고리 동화 구연 등의 활동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정착과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군 관계자는 "성장기 아동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영양교육을 통해 식생활과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양플러스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80%미만 임신부 및 영유아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 대상자를 선정해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사업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국립공원

임실군, 파크골프장 창립총회 개최

임실군이 누구나 참여하는 생활스포츠로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신설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수면 사무소에서 심민 군수를 비롯해 문영두 군의장, 회원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어 총회 제정 및 진강초 초대회장, 김복남·염용규 부회장을 선출했다.

오수문화체육센터 내 지난 4월 착공해 10,000㎡로 9월 완공한 파크골프장은 기존 골프장을 50분의 1크기로 축소해 경기를 벌일 수 있는 규모이다.

총회에 참석한 심민 군수는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보급으로, 임실군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 신설에 따른 동호회원 모집 결과 보름여만에 95명이 몰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경찰과 함께 '순~힐링투게더'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 여성청소년계는 지난 2일 자체 시책인 '순~힐링투게더'의 일환으로 가정폭력 피해가정과 따뜻한 만남을 가져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순~힐링투게더'란, 4대 사회적 피해자와 경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지원하며, 신속히 사회나 가정등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자체 시책이다.

이 날 가정폭력 피해 가정인 네 가정을 선별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각 가정마다 한명의 경찰관이 1:1 멘토가 되어 꼼꼼히 상담을 해주었고, 지난 달에 업무협약을 맺은 '순창작은영화관'에서 함께 영화 관람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생활이 취약한 두 가정을 선별하여 화장지, 세계 등 생필품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계장 등이 직접 피해자에게 손편지를 쓰며, 피해자는 혼자서 아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며 응원했다.

최규은 경찰서장은 "순창경찰은 우리 주변에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순힐링투게더 프로젝트를 준비했다. 경찰관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민을 나누며 빠른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경찰, 농산물 절도예방 총력

고창경찰서(총경 전순홍) 부안파출소에서는 고추, 인삼 등 수확기 농산물 절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 년 내내 피 땀 흘려 재배한 소중한 농산물을 하루아침에 도난당할 경우 농민들의 상실감이 그 어떤 것보다 큰 만큼 농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농산물 보관 창고 등을 방문하여 방법지도를 실시하였으며, 농산물을 시정정치가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CCTV 등 방법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차량용 블랙박스 부착된 차량을 마을 입구나 창고 앞에 주차하는 등 자위방범 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삼재배를 방문하여 방법지단 실시 취약요소 파악 및 다기능 블랙박스 설치 등 절도예방 대책을 공유하는 맞춤형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고령회 소장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홀로 거주하는 노인인구 증가로 자위방범이 취약한 주민들이 피담 흘러 키운 농산물을 도난당하지 않도록 맞춤형 농산물 절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석 기자